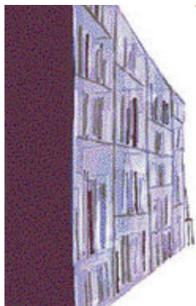


■ 내 아이 '도서관 100% 활용' 이렇게

'도서관 노트' 만드니 책과 친해졌어요



지난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인표어린이도서관. '제9회 도서관 책사랑잔치'가 열리고 있어서인지 '동네 꼬마녀석들'도 북적거렸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은 30여평 규모의 공간에 1만여권의 어린이책이 구비된 '작은 마을도서관'이다. 하지만 올해로 17년이나 된 이 도서관은 지역 아이들에겐 공부방이자 놀이터로 자리잡았다.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마치 제집처럼 편안하게 책을 읽는 가 하면 어떤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 있었다. 김효진(오치초 3년)양은 "여러 종류의 책을 맘대로 볼 수 있어서 거의 매일 도서관에 온다"며 "친구들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더 좋다"고 말했다.

사서 김신애(여·31)씨는 "하루 평균 40~50명의 아이들이 방문할 정도의 작은 규모지만 아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네 도서관은 잘만 이용하면 공립 도서관만큼이나 유용하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제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100% 활용법을 알아보자.

■예절을 익혀라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 전용 열람실은 성인용에 비해 덜 조용하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조용히 할 것'만을 주문하면 금세 싫어지기 때문이다. 부모와 함께 열람

로운 책들이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책을 고르기 위해 여러 책을 훑어볼 수 있는 장점이다. 훑어본다는 것은 책의 대충을 얻어간다는 것이다. 책을 고르는 안목이 길러진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고를 수 있다면 이미 책에 흥미를 가졌다는 얘기다.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에 맞게 도서관이 권장하는 책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이 연령별 발달과정에 따라 선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컴퓨터에서 책을 먼저 고를 수도 있다.

Table with 5 columns: 도서관, 일시, 대상, 프로그램, 문의전화. Lists various library programs like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신수도서관', etc.

■ 광주지역 도서관 살펴보니 동화구연·독서모임 등 유익한 프로그램 다양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빌리는 곳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내 도서관들은 동화구연, 책 읽어주기, 독서모임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보다 다른 흥미를 유발한다. 독서 이상 중요한 것이 독서 후 활동이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독후감을 쓰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

연중 프로그램 외에도 방학 등 특정 기간에 현장체험, 독서퀴즈대회 등을 여는 도서관이 많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곳도 있다. 영상이자료에 비하면 애니메이션을 골라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서관 내 설치된 계산관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기본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제9회 도서관 책사랑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지난 7일 사서 김신애(오른쪽에서 뒷편)씨와 함께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다. /위정리기자 jwi@kwangju.co.kr

독서노트 쓰기·책 고르기 스스로 하게 해야 강요 금물... '책 놀이터' 인식줘야 흥미 유발

실례 없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끼리 책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도서관에선 다른 사람의 독서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기본만 익히게 하면 된다. 그 래야 도서관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 일단 단 도서관 예절에 익숙해지면 사서에게 필요한 책을 문의하는 일도, 책 분류법을 익혀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찾아내는 일도 즐겁게 여기게 된다.

특히 도서관 사서는 단순히 책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연령에 맞는 책을 조언해주는 등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책은 아이가 고르도록 아이가 고른 책이 부모의 마음에는 영 담갈지 않다면? 일단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도서관은 서점보다 덜 다양하고 덜 새

■도서관 노트를 만들어라 도서관 가방을 따로 만들어 도서관 노트와 대출증 등을 넣어주면 아이들은 매우 좋아한다. 대출증을 내밀고 직접 책을 빌리는 일이 '놀이처럼' 재미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노트에는 우선 지금까지 자신이 빌렸던 책의 목록을 적게 한다. 도서 대출과 반납을 반복하면서 도서관 노트가 백백해지는 것을 보지만 해도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가 읽은 책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책을 고를 때 더 신중해진다. 도서관 나들이에 흥미를 붙이고 독서에 탄력이 생겼다면 읽은 책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강요해선 안 된다. 이 같은 기록들이 쌓이면 훌륭한 '독서일기'가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 Advertisement for movies with a colorful background.

메가박스 (Megabox) -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with movie listings.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with movie listings.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with movie listings.

마음... (Heart...) - Advertisement for a movie titled '마음...'

내가 있어 참 좋다... (I'm here, it's so good...) - Advertisement for a movie.

거룩한 계보 (The Holy Blood) - Advertisement for a movie.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Gongin Jeong-gae-sa) - Real estate advertisement.

금부부동산컨설팅 (Geonbu Real Estate Consulting) - Real estate advertisement.

민음공인중개사 (Minum Gongin Jeong-gae-sa) - Real estate advertisement.

법원정리 GG옥션 광주점 (Lawyer's Office GG Auction Gwangju Branch) - Real estate advertisement.

금천공인중개사 (Geoncheon Gongin Jeong-gae-sa) - Real estate advertisement.

대인부동산컨설팅 (Daerin Real Estate Consulting) - Real estate advertisement.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Jeong-gae-beon-ri-cheo Real Estate Management) - Real estate advertisement.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Jusokseon Korea Real Estate Auction) - Real estate advertisement.